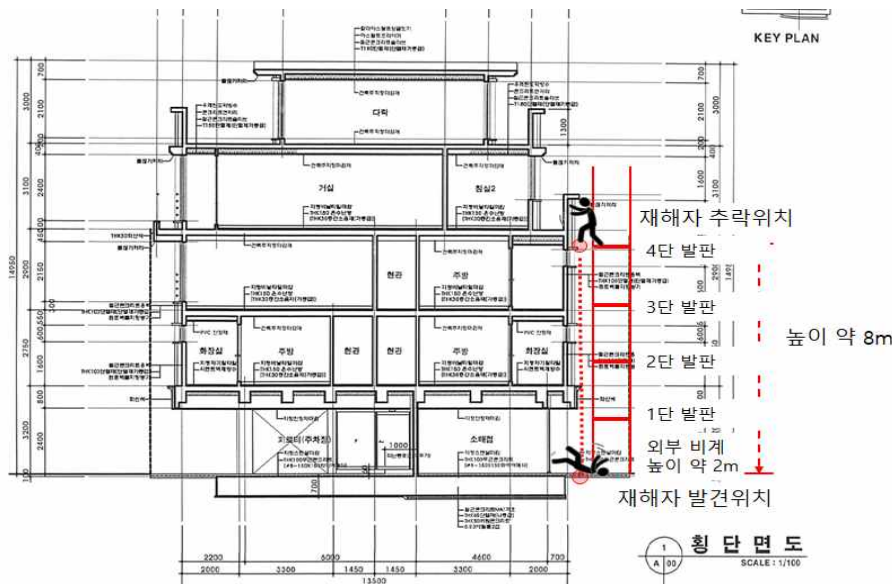


수평목 설치 작업 중 외부 비계 작업발판과 건물 벽체 사이 개구부로 떨어져 사망

사업장명	OOO 신축공사	발생일시	2018.4.21.(토) 11:00경
재해형태	떨어짐	재해정도	사망 1명
소재지	전북 전주시	공사규모	지상5층 1개동
재해개요	2018년 4월 21일(토) 11시 00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OOO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4층 외부 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4층 발코니 바닥에 수평목*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외부 비계와 건물 벽체사이 개구부(약 70cm)로 추락(높이 약 8m)하여 병원으로 이송치료 중 2018.07.18.(수) 사망한 재해임. * 수평목 : 벽체 거꾸집 작업 전 수평을 맞추기 위해 설치하는 목재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개구부로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추락방지조치 철저

-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 작업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비계와 건물 사이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
-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된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해야함.